

“전남 경제, 낙후 보다 SOC부족이 문제”

전남경제포럼 세미나서 박성훈 조선대 교수 주장

“열악한 도로포장률 등이 인구감소·성장둔화 불러”

전남 경제의 문제는 낙후가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미흡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해 인구 감소, 성장 속도 둔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전남경제포럼 장림세미나의 주제발표를 맡은 조선대 경제학과 박성훈 교수는 ‘제조업 입지를 중심으로 한 전남 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전남의 문제는 인구 감소와 경제성장의 한계이며, 생산성 측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문화, 교육, 건강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 전남의 2013년 도로포장률은 78.83%로 전국 13위, 2012년 상하수도 보급률은 76.44%로 15위, 2013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20명으로 9위 등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이는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은 지난 1975년 전국 인구의 9.4%를 차지했으나 지난 2010년 기준으로 비중이 3.6%로 급전직하했다.

반면 지난 2012년 전남의 1인당 총생산액은 3656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6342만원), 충남(4471만원) 등에 이어 3번째를 기록하는 등 경제지표면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나은 편이다.

박 교수는 따라서 전남은 향후 경제성장보다는 교육·의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펴야한다는 논리를 내놨다.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동일한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나타나는 ‘집적경제’를 통해 박 교수는 분류한 90개 제조업 가운데 전남의 경우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초화학물질, 비료 및 질소화합물,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고무제품,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시멘트 및 석회·플라스틱, 1차 철강 등 8개가 특화산업으로 분류됐다. 경기도가 36개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충북이 28개, 서울과 인천이 26개였으며, 광주는 15개였다.

중사자당 부가가치, 중사자당 자본 등에서도 경쟁력이 높은 산업으로는 기초화

학물질,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1차 철강 등이 꼽혔다.

박 교수는 “전남의 경우 특화에 따라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집적경제가 발생한 산업을 고려해 지역경제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25일 이낙연 전남지사,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등 국내 경제전문가, 광주·전남상공회의소 등 지역경제단체 관계자, 지역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경제포럼에서는 박 교수의 발표와 함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충중 부원장의 ‘국제경제 전망과 한국의 대응정책’ 등 주제발표를 토대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경제포럼을 정기적으로 열어 경제정책의 평가와 대안 도출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동서 하나, 남해안 시대 활짝”

이낙연 전남지사, 주철현 여수시장, 조세운 (가칭)동서창조포럼 의장과 포럼위원들이 24일 여수 GS칼텍스 쌍봉사택 회의실에서 열린 동서창조포럼 장림총회에 참석해 ‘동서 하나, 남해안시대 활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무리한 개발 억제 등 산단정책 개선 나선다

신규 산단 지정 요건 강화

이낙연지사 “수요맞춰 개발을”

전남도가 이미 조성됐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분양 공고된 산업용지 중 미분양 면적이 411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분양 면적(282만㎡)의 약 1.5배에 달해 용지 공급이 과다하다고 판단, 무리

한 산단 개발 억제 및 분양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 입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국토교통부 입지 수요 검증반의 검증을 거쳐도록 했다. 또 민간업체가 사업자금 대출을 위해 일선 지자체에 요구하는 채무보증이나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은 반드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외에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의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을 강화해

주도국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사업 시행자 자격 요건은 건설사의 경우 연평균 실적 산입단지 개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이거나 이 요건을 갖춘 건설사가 지분율 20% 이상 참여하는 전담기업(SPC)이면 가능해 건설하지 못한 기업들이 참여해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기업(SPC)의 자본금을 산업단지 개발 연평균 사업비의 3분의1 이상으로 하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것과 같이 전담기업(SPC)에 출자한 민간기업의 신용평가

등급도 투자 적정등급(BBB) 이상인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10%) 이상의 금액을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예치하는 이행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24일 오전 전남도 사업소·출연기관장 토론회에서 전남지역 내에서 추진된 산업단지, 택지 등이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수요에 맞춰 개발할 것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근 전남도내를 돌아다녀보니 땅을 파헤쳐놓고 그대로 있는 산업단지, 택지 등이 상당수 보인다”고 지적하고 “수요가 있는지,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지방정가

문태환 “옛 학생독립운동기념관 신축해야”

광주시의회 문태환(새정치·광산 2) 의원은 24일 광주시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청소년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옛 학생독립운동기념관 리모델링 공사를 신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옛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은 629만원으로, 총 113억원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정도 예산이라면 신축도 가능한 예산이다”고 덧붙였다.



문에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리모델링 예산이 평당 629만원으로, 총 113억원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정도 예산이라면 신축도 가능한 예산이다”고 덧붙였다.

박춘수 “광주시 감사위원회 신설해야”

광주시의회 박춘수(새정치·남구 3) 의원은 24일 “광주시가 청렴도 반부패 경쟁력 상위에 진입하려면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열린 예산안 심의에서 “지난 4개년 간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와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의 순위가 중하위권”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준비하는 감사위원회의 권한은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 심의, 처분지시서의 검토, 처분요구 및 징계 수위 결정 등 총괄과 제주의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재인 “이희호 여사에 대북특사 자격 부여” 제안

박지원 “건강 고려 일정 조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4일 북한과 방북 일정을 조율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북특사 자격을 부여하라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에서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대북 정책이아말로 연평도 포격 사건 4주기를 맞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여사 방북을 대북특사로 활용해 남북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기를 제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그럴 뜻이 있다면 여사도 기꺼이 협조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방북 시기도 그 역할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이 여사의 방북 시점과 관련, “금년에 이 여사의 연세가 93세이고 지금 날씨가 추운 때”라면서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 여사의 건강 문제라서 의사들과 논의해 방북일정을 조정하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 이번주 선임

전남도가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유일한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전남지사 2명, 전남도의회 의장 3명, 전남개발공사 이사회 2명 추천으로 구성된다.

전남도는 24일 “지난 21일 전남개발공사 정기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 선정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일부 이견이 있어 위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남개발공사 이사회는 당연직(시장·

도 기획조정실장·건설방재국장) 이사 3명과 선출직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선출직 이사들의 의결로 사장추천위원 2명을 정하게 돼 있지만, 당연직 이사들도 추천위원 선정 논의의 장에 참여하지는 않던 것이 나오면서 위원을 선정하지 못한 채 이사회가 마무리됐다.

임원추천위원 선정 문제를 선출직 이사(임기 3년)들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는 전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극공연, 공무원연극,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새우터,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텝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허니랜드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히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씨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의 2중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의 2중
 원적외선 히터의 11중
 대형 제습기의 2중
 이동식 에어컨의 11중
 범씨 온탕 소독기의 5중

무등산업 (062) 372-7585 사·군 취급점
 010-3601-7701 선착순 모집